

3. 전라남도

- 3-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3-2. 월평균 가구소비
- 3-3. 청년 지원 정책
- 3-4.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 3-5. 스트레스 정도
- 3-6. 쓰레기 처리 만족도
- 3-7.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8. 스마트폰 이용실태
- 3-9.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3-10. 여가 활동
- 3-11.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3-12. 주거 화재안전시설
- 3-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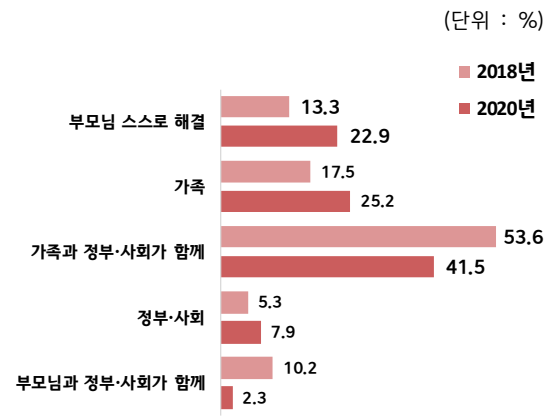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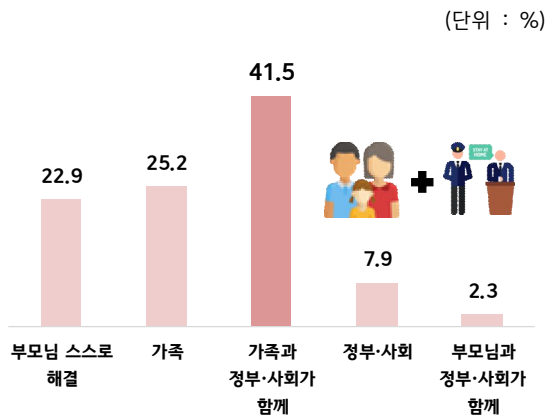
3-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대다수의 국민은 부모님을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

-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41.5%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가족’(25.2%), ‘부모님 스스로 해결’(22.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정부·사회’(7.9%)와 ‘부모님과 정부·사회가 함께’(2.3%)는 낮은 비율을 보임
-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 대비 하락
 -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로 응답한 국민은 41.5%로 2018년(53.6%)에 비해 12.1%p 하락함
 - ‘부모님 스스로 해결’은 22.9%로 2018년(13.3%)에 비해 9.6%p 상승함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20년) ▶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18년, 2020년)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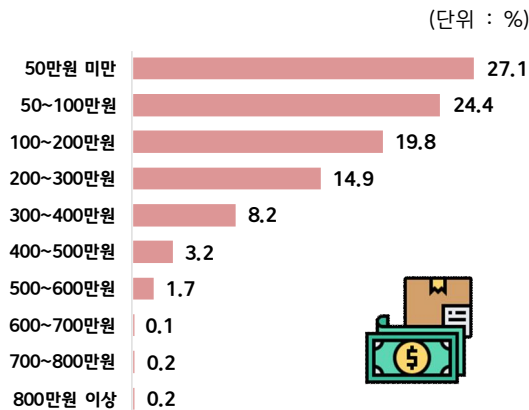
구분	계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정부·사회	부모님과 정부·사회가 함께	기타
2020년	100.0	22.9	25.2	41.5	7.9	2.3	0.2
2018년	100.0	13.3	17.5	53.6	5.3	10.2	0.0
〈 연령 별 〉							
15 ~ 29세	100.0	13.0	29.9	45.2	9.2	2.6	0.0
30 ~ 39세	100.0	19.6	22.4	50.4	3.8	3.0	0.8
40 ~ 49세	100.0	19.1	20.1	54.5	5.4	0.9	0.0
50 ~ 59세	100.0	15.5	29.8	43.6	8.6	2.1	0.3
60세 이상	100.0	32.1	23.4	33.1	8.8	2.5	0.1
65세 이상	100.0	31.8	25.2	32.5	8.2	2.4	0.0

3-2. 월평균 가구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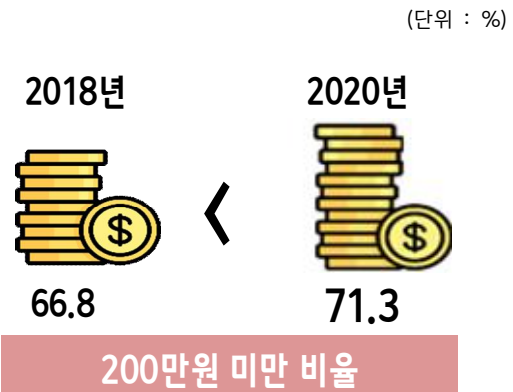
군민 7명 중 2명은 200만원 이상 지출

- 월평균 소비가 2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8.5%로 조사됨
 - 월평균 소비가 2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8.5%,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71.3%로 나타남
 - 2020년에 200만원 미만 비율이 2018년의 비율 66.8%보다 4.5%p 증가함
 - '50만원 미만'(27.1%), '50만원~100만원'(24.4%), '100만원~200만원'(19.8%) 순으로 응답함
 - 월평균 소비가 고액(400만원 이상)인 군민은 5.4%임
- 서부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평균 소비의 고액 비율이 높음
 - 400만원 이상인 군민의 비율은 서부권이 13.4%로 중부권(5.8%), 광주인권권(2.2%), 북부권(0.9%)에 비해 각각 7.6%p, 11.2%p, 12.5%p 높게 나타남
 - 서부권은 '200만원~300만원'의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부권은 '50만원~100만원'이 26.0%, 광주인권권과 북부권은 '50만원 미만'이 각각 34.7%, 32.5%로 가장 높음
- 남녀 모두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료품비
 - 남자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위와 2위는 각각 '식료품비'(45.2%), '보건의료비'(15.5%)임
 - 여자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위와 2위는 각각 '식료품비'(41.5%), '보건의료비'(30.0%)임
 - 남녀 모두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 2순위가 동일하고 1순위 '식료품비'에 대한 응답률은 유사한 반면, 2순위 '보건의료비'에 대한 응답률은 남자보다 여자가 1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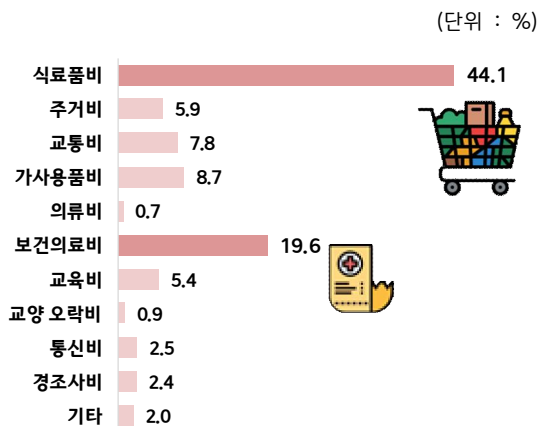
<< 월평균 가구소비(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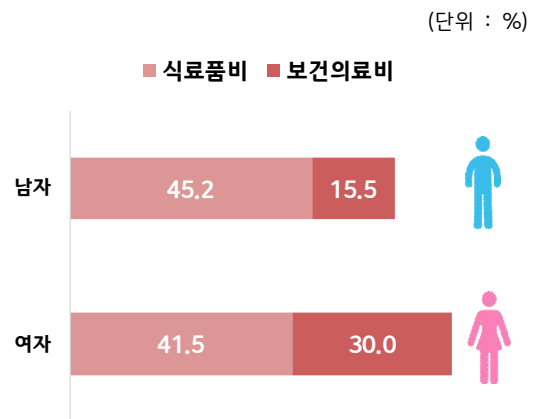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비(2018년, 2020년) >>



<<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종합) >>



<<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성별) >>



월평균 가구소비

(단위 :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0년	100.0	27.1	24.4	19.8	14.9	8.2	3.2	1.7	0.1	0.2	0.2	
2018년	100.0	14.6	25.9	26.3	16.9	9.4	3.8	1.1	0.4	0.7	1.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2.1	26.0	22.8	15.4	7.9	2.4	2.0	0.5	0.4	0.5	
광주인근권	100.0	34.7	28.3	17.2	8.7	8.9	0.9	1.3	0.0	0.0	0.0	
서 부 권	100.0	18.5	15.2	14.0	27.8	11.2	10.1	2.4	0.0	0.5	0.4	
북 부 권	100.0	32.5	26.3	27.1	9.3	3.9	0.0	0.9	0.0	0.0	0.0	
〈 성 별 〉												
남 자	100.0	18.9	23.6	21.1	18.8	10.8	4.2	1.8	0.2	0.3	0.3	
여 자	100.0	47.9	26.5	16.8	5.2	1.7	0.6	1.4	0.0	0.0	0.0	
〈 연 령 별 〉												
15 ~ 29세	100.0	0.0	11.9	4.5	59.7	0.0	23.9	0.0	0.0	0.0	0.0	
30 ~ 39세	100.0	0.0	3.4	16.5	41.0	10.0	24.6	4.5	0.0	0.0	0.0	
40 ~ 49세	100.0	11.7	21.2	23.6	19.4	12.7	4.4	6.2	0.0	0.8	0.0	
50 ~ 59세	100.0	18.6	21.6	24.9	14.3	16.4	1.3	1.9	0.5	0.0	0.5	
60세 이상	100.0	40.7	29.7	17.5	8.1	3.0	0.3	0.2	0.0	0.2	0.2	
65세 이상	100.0	46.7	30.2	15.0	5.1	2.4	0.4	0.2	0.0	0.0	0.0	

월평균 가구소비 -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종합)

(단위 : %)

구 분	계	식료 품비	주거비	교통비	가사 용품비	의류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통신비	경조 사비	기타
2020년	100.0	44.1	5.9	7.8	8.7	0.7	19.6	5.4	0.9	2.5	2.4	2.0
2018년	100.0	36.2	11.5	9.8	4.0	0.3	19.4	6.5	2.0	3.2	5.1	2.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6.8	7.8	4.7	6.8	2.0	20.1	4.5	1.2	2.3	1.1	2.6
광주인근권	100.0	45.9	5.5	5.9	11.2	0.1	20.3	4.5	0.4	1.6	2.6	2.0
서 부 권	100.0	45.4	6.7	8.3	6.8	0.4	14.0	9.6	1.6	3.1	2.6	1.5
북 부 권	100.0	35.0	2.5	15.5	9.3	0.3	24.6	3.2	0.3	3.9	3.7	1.5
〈 성 별 〉												
남 자	100.0	45.2	6.0	9.3	8.9	0.7	15.5	6.6	1.0	2.6	2.2	2.1
여 자	100.0	41.5	5.8	4.1	8.0	1.0	30.0	2.3	0.7	2.4	2.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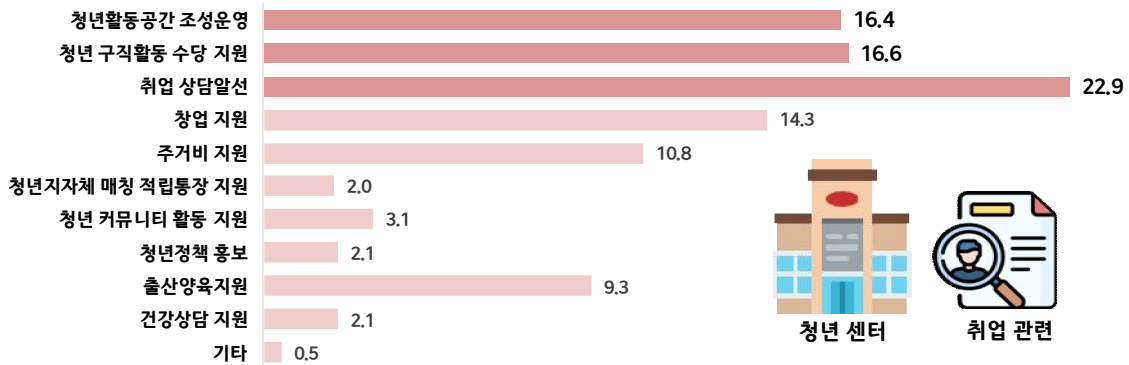
3-3. 청년 지원 정책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추진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과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 가장 추진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이 가장 높음
 - 전라남도가 추진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취업 상담 알선'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은 16.6%,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이 16.4% 순으로 나타남
 - 취업 관련 문항('취업 상담 알선'+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상담·알선에 대한 응답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높음
 -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에서 '취업 상담 알선' 항목이 각각 26.3%, 25.5%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10%후반~20%초반의 분포를 보임

« 청년 지원 정책 »

(단위 : %)



청년 지원 정책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계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운영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취업 상담 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 지원	청년 지자체 매칭 적립통장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정책 홍보	출산 양육 지원	건강 상담 지원	기타
2020년	100.0	16.4	16.6	22.9	14.3	10.8	2.0	3.1	2.1	9.3	2.1	0.5
<성별>												
남자	100.0	18.5	16.7	23.3	14.6	9.6	2.1	2.6	2.2	8.4	1.8	0.3
여자	100.0	14.1	16.6	22.4	13.9	12.0	1.9	3.7	2.0	10.3	2.3	0.7
<연령별>												
15~29세	100.0	12.1	16.8	17.1	10.7	15.6	4.0	5.3	5.8	10.3	2.1	0.4
30~39세	100.0	17.2	12.9	17.7	12.7	13.3	0.0	5.3	4.3	14.7	1.2	0.7
40~49세	100.0	12.3	22.3	20.8	14.5	10.1	3.8	4.6	1.1	7.6	2.1	0.8
50~59세	100.0	18.3	16.5	23.3	17.4	10.0	0.6	2.4	0.4	9.2	1.8	0.2
60세 이상	100.0	17.9	15.5	26.3	13.8	9.4	2.0	1.9	1.8	8.5	2.4	0.6
65세 이상	100.0	18.3	16.6	25.5	13.8	9.2	1.7	1.4	1.5	8.8	2.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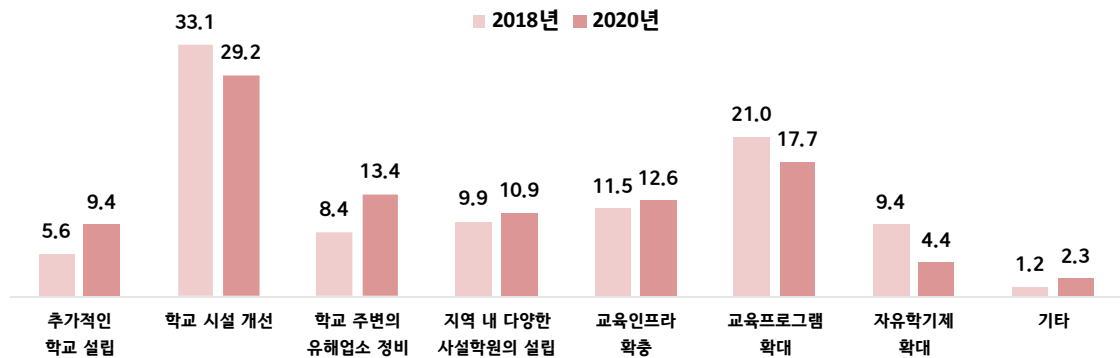
3-4.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우선적으로 지원·개선해야 할 분야는 학교 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개선해야 할 분야로는 ‘학교 시설 개선’(29.2%), ‘교육 프로그램 확대’(17.7%),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13.4%)’ 순으로 나타남
 - 광주인근권의 경우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35.5%로 중부권(24.1%), 서부권(28.3%), 북부권(28.3%)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 시설 개선’의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8년에 비해 학교 시설 개선 응답률 하락,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 응답률 상승
 -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응답률은 2020년(29.2%)이 2018년(33.1%)보다 3.9%p 하락함
 -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에 대한 응답률은 2020년(13.4%)이 2018년(8.4%)보다 5.0%p 상승함

<<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

(단위 : %)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

구분	계	추가적인 학교 설립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유 학기제 확대	기타
2020년	100.0	9.4	29.2	13.4	10.9	12.6	17.7	4.4	2.3
2018년	100.0	5.6	33.1	8.4	9.9	11.5	21.0	9.4	1.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0.6	24.1	11.0	12.8	7.8	23.2	7.2	3.4
광주인근권	100.0	7.3	35.5	13.9	7.7	23.5	9.7	0.6	1.8
서부권	100.0	13.6	28.3	18.2	10.6	8.1	15.3	4.3	1.5
북부권	100.0	6.3	28.3	11.5	13.7	6.2	25.3	6.4	2.2
< 연령 별 >									
15~29세	100.0	6.4	28.1	11.3	19.0	16.6	15.1	3.4	0.0
30~39세	100.0	3.8	20.9	15.9	15.3	14.3	15.1	11.6	3.1
40~49세	100.0	6.0	21.3	13.5	11.6	21.0	19.6	4.5	2.6
50~59세	100.0	6.3	30.9	14.1	10.4	13.9	17.7	5.2	1.6
60세 이상	100.0	14.3	32.9	13.1	7.5	7.5	18.5	2.9	3.3
65세 이상	100.0	13.6	34.5	14.2	7.0	7.5	16.1	3.2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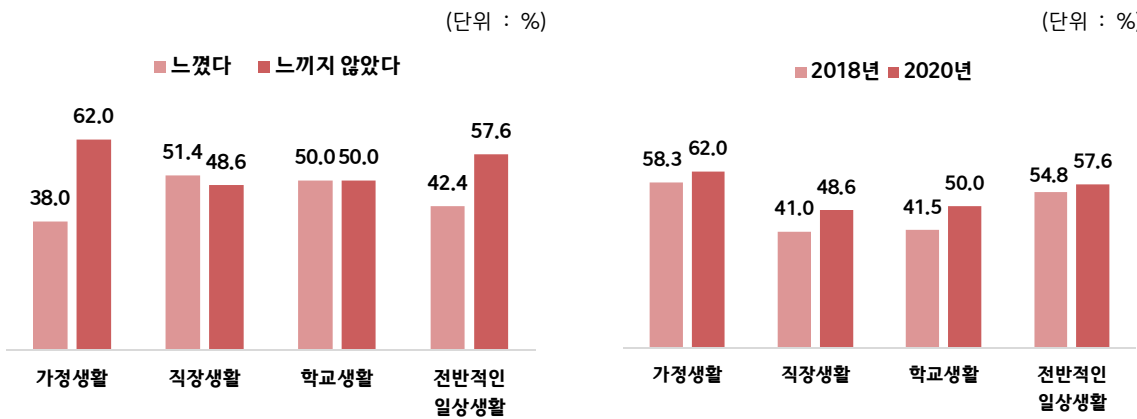
3-5.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민의 비율이 2018년 대비 상승

-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민은 57.6%로 나타남
 - ‘가정생활’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비율은 각각 62.0%, 57.6%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에 비해 24.0%p, 15.2%p 높게 나타남
 -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비율은 48.6%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에 비해 2.8%p 낮음
 -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비율은 50.0%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과 동일함
- 2018년에 비해 2020년에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민의 비율이 증가함
 -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민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각각 3.7%p, 7.6%p, 8.5%p,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정도(2020년) ▶▶

◀◀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편이다(2018년, 2020년) ▶▶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구분	계	느꼈다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가정생활							
2020년	100.0	38.0	4.7	33.4	62.0	40.9	21.0
2018년	100.0	41.8	4.9	36.9	58.3	45.9	12.4
직장생활							
2020년	100.0	51.4	8.3	43.1	48.6	31.1	17.6
2018년	100.0	59.1	9.0	50.1	41.0	27.1	13.9
학교생활							
2020년	100.0	50.0	9.5	40.5	50.0	38.2	11.8
2018년	100.0	58.5	12.3	46.2	41.5	33.8	7.7
전반적인 일상생활							
2020년	100.0	42.4	4.6	37.8	57.6	41.0	16.7
2018년	100.0	45.2	3.8	41.4	54.8	45.8	9.0

3-6. 쓰레기 처리 만족도

군민 10명 중 1명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3.8점의 평균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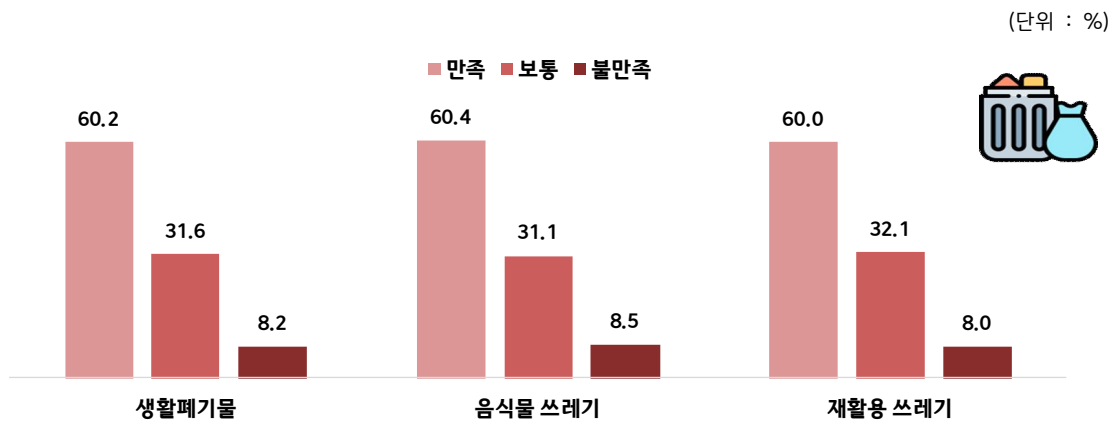
· 쓰레기 처리 평균 만족도는 모두 3.8점 이상

- 평균 만족도는 '생활폐기물'은 3.8점, '음식물 쓰레기'는 3.8점, '재활용 쓰레기'는 3.8점으로 평균 만족도 5점 만점 대비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불만족 비율은 '음식물 쓰레기'(8.5%), '생활폐기물'(8.2%), '재활용 쓰레기'(8.0%)의 순서를 보이며 만족 비율보다 각각 51.9%p, 52.0%p, 52.0%p의 큰 차이로 낮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부권과 중부권 순으로 높은 만족 비율을 보이고,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이 서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이며 서부권과 중부권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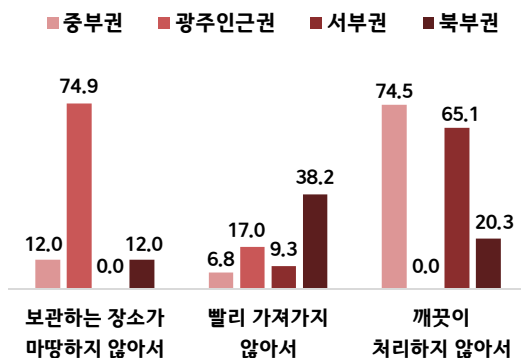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처리 불만족 이유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5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인근권에서의 문항 응답률이 7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음
- '음식물 쓰레기'는 중부권과 서부권의 경우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가 각각 74.5%, 6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광주인근권은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가 74.9%로 현저하게 높음
-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 전체 군민은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가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부권과 서부권은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가 각각 49.6%, 44.4%, 광주인근권은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가 73.1%로 높게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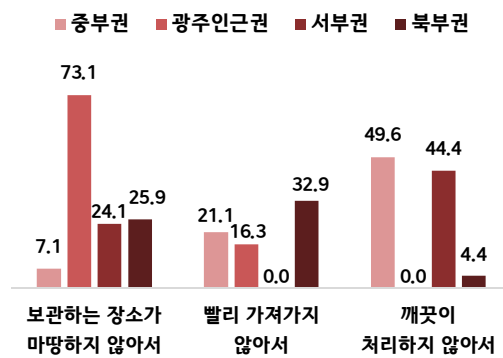
〈 음식물 쓰레기 처리(불만족 이유) 〉

(단위 : %)



〈 재활용 쓰레기 처리(불만족 이유) 〉

(단위 : %)



쓰레기 처리 만족도

(단위 : %)

구 분	평균 만족도	계	해당 있음	소계									해당 없음
				만족	매우만족	다소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생활폐기물													
2 0 2 0 년	3.8	100.0	98.4	100.0	60.2	29.9	30.3	31.6	8.2	6.2	2.0	1.6	
지역별	중 부 권	4.0	100.0	96.3	100.0	67.1	35.9	31.1	28.9	4.1	2.8	1.3	3.7
	광주인근권	3.4	100.0	100.0	100.0	46.7	16.7	30.0	36.3	16.9	13.4	3.5	0.0
	서 부 권	4.2	100.0	99.7	100.0	82.3	41.1	41.2	15.8	2.0	1.6	0.4	0.3
	북 부 권	3.7	100.0	98.0	100.0	47.6	30.9	16.6	45.7	6.7	4.1	2.7	2.0
음식물 쓰레기													
2 0 2 0 년	3.8	100.0	98.6	100.0	60.4	29.5	30.9	31.1	8.5	6.0	2.5	1.4	
지역별	중 부 권	4.0	100.0	96.9	100.0	67.6	35.4	32.2	28.5	3.9	1.8	2.1	3.1
	광주인근권	3.4	100.0	100.0	100.0	45.0	15.9	29.0	37.6	17.4	13.3	4.2	0.0
	서 부 권	4.2	100.0	99.7	100.0	82.6	40.9	41.7	15.7	1.8	1.6	0.2	0.3
	북 부 권	3.7	100.0	97.7	100.0	51.0	32.0	19.0	41.9	7.1	4.2	2.9	2.3
재활용 쓰레기													
2 0 2 0 년	3.8	100.0	95.5	100.0	60.0	29.7	30.2	32.1	8.0	5.8	2.1	4.5	
지역별	중 부 권	4.0	100.0	93.6	100.0	67.8	36.2	31.7	28.6	3.5	1.9	1.6	6.4
	광주인근권	3.4	100.0	100.0	100.0	45.9	17.2	28.8	37.3	16.7	13.3	3.5	0.0
	서 부 권	4.2	100.0	96.9	100.0	80.8	39.9	40.9	16.7	2.4	1.5	0.9	3.1
	북 부 권	3.7	100.0	89.4	100.0	47.9	29.8	18.1	46.2	5.9	3.8	2.1	10.6

쓰레기 처리 만족도(불만족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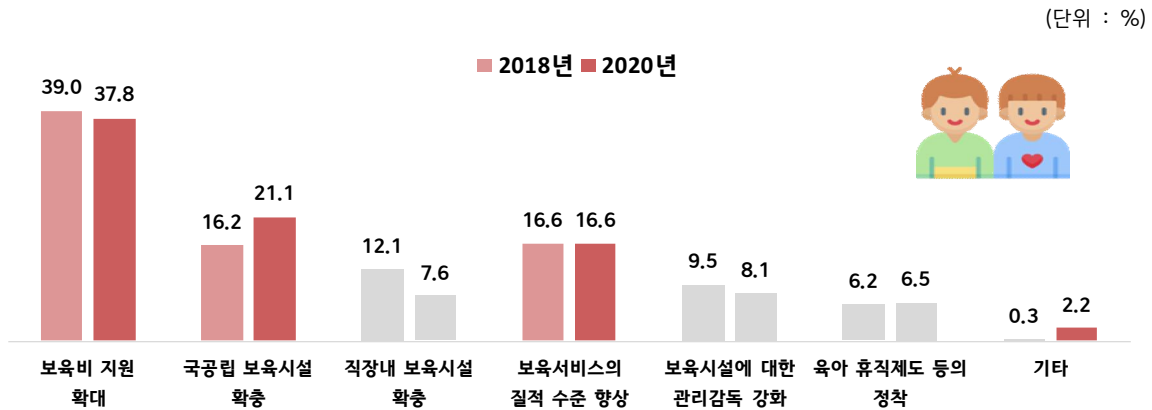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생활폐기물								
2 0 2 0 년	100.0	19.1	6.8	12.2	2.4	53.6	4.7	1.1
지역별	중 부 권	100.0	12.3	19.9	44.7	0.0	6.2	0.0
	광주인근권	100.0	18.3	3.6	0.0	2.9	75.2	0.0
	서 부 권	100.0	0.0	0.0	68.5	0.0	12.5	19.0
	북 부 권	100.0	36.7	9.8	15.4	3.9	17.3	9.0
음식물 쓰레기								
2 0 2 0 년	100.0	18.1	4.7	16.1	4.2	54.4	1.5	1.1
지역별	중 부 권	100.0	6.8	0.0	74.5	0.0	12.0	6.7
	광주인근권	100.0	17.0	3.5	0.0	4.6	74.9	0.0
	서 부 권	100.0	9.3	14.1	65.1	11.5	0.0	0.0
	북 부 권	100.0	38.2	13.1	20.3	4.0	12.0	4.0
재활용 쓰레기								
2 0 2 0 년	100.0	18.1	7.3	10.1	3.8	55.1	3.7	1.9
지역별	중 부 권	100.0	21.1	7.1	49.6	0.0	7.1	15.0
	광주인근권	100.0	16.3	5.9	0.0	4.8	73.1	0.0
	서 부 권	100.0	0.0	0.0	44.4	0.0	24.1	18.3
	북 부 권	100.0	32.9	18.8	4.4	4.4	25.9	4.4

3-7.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순으로 나타남**
 - ‘보육비 지원 확대’ 37.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1.1%,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6.6% 순의 응답 비율을 보임
 -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은 2018년(12.1%)에 비해 2020년(7.6%)에 4.5%p 하락함
-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비 지원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은 46.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30대는 29.2%로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50대의 경우 29.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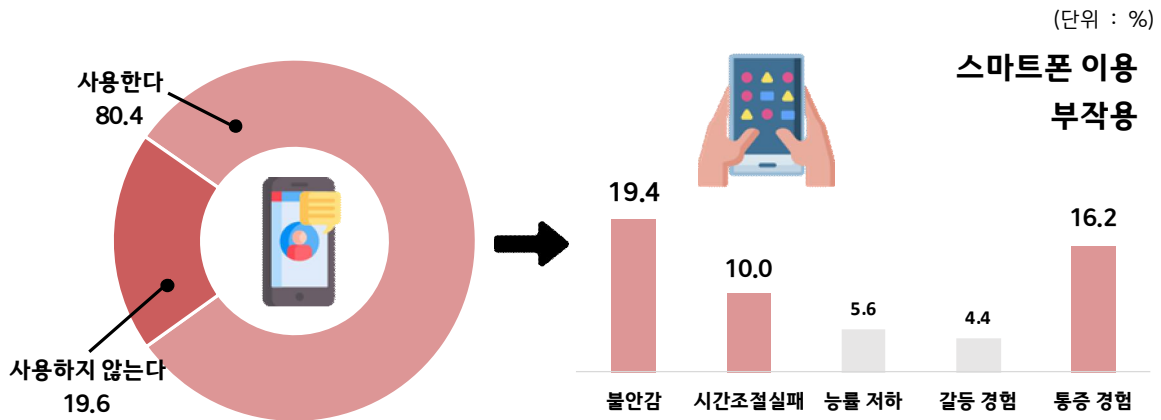
구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20년	100.0	37.8	21.1	7.6	16.6	8.1	6.5	2.2
2018년	100.0	39.0	16.2	12.1	16.6	9.5	6.2	0.3
〈 연령 별 〉								
15 ~ 29세	100.0	30.9	12.3	8.3	18.3	16.1	12.1	2.0
30 ~ 39세	100.0	29.2	20.6	19.9	18.3	1.9	8.3	1.8
40 ~ 49세	100.0	30.5	14.5	7.2	29.5	10.9	4.7	2.8
50 ~ 59세	100.0	37.3	29.9	4.4	14.0	5.2	7.8	1.4
60세 이상	100.0	44.4	21.2	6.9	13.0	7.5	4.3	2.7
65세 이상	100.0	46.3	21.4	6.7	11.9	7.5	3.3	3.0

3-8. 스마트폰 이용실태

군민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10명 중 1명만이 스마트폰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응답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은 전체의 80.4%로 나타남
 -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80.4%,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19.6%로 나타남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 중 부작용을 경험한 군민은 적음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함(19.4%)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통증 경험’(눈이나 목 등이 아팠던 적이 있다)이 있었던 군민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조절 실패’가 있었던 군민은 각각 16.2%와 10.0%로 나타남
 - ‘능률 저하’, ‘갈등 경험’을 겪는 군민은 각각 5.6%, 4.4%로 부작용 항목 중 가장 낮음

<< 스마트폰 이용실태 >>



스마트폰 이용실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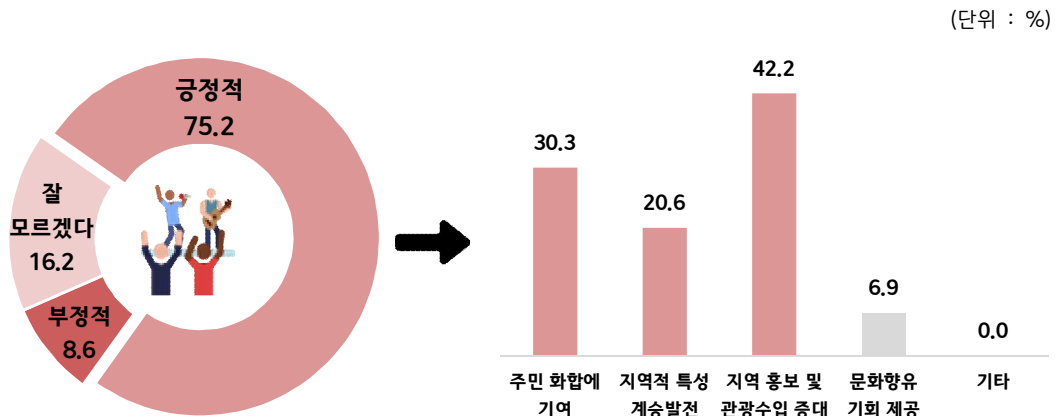
구분	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불안감	100.0	80.4	100.0	19.4	5.0	14.4	17.7	62.8	23.6	39.2	19.6
시간조절실패	100.0	80.4	100.0	10.0	2.4	7.6	15.2	74.8	27.4	47.5	19.6
능률 저하	100.0	80.4	100.0	5.6	1.4	4.2	13.0	81.3	25.7	55.6	19.6
갈등 경험	100.0	80.4	100.0	4.4	1.0	3.4	11.3	84.2	24.9	59.3	19.6
통증 경험	100.0	80.4	100.0	16.2	3.2	13.0	19.3	64.5	20.8	43.7	19.6

3-9.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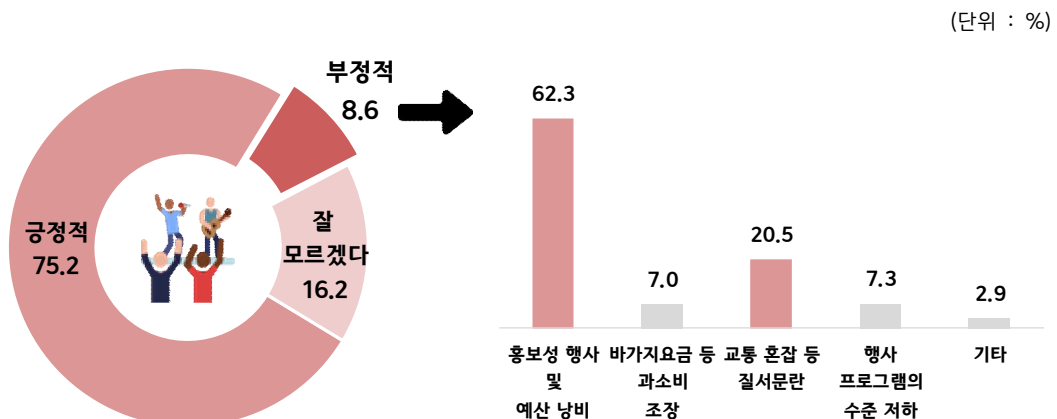
군민 4명 중 3명은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에 긍정적

-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군민의 비율이 75.2%임
 -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2%,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6%,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은 16.2%로 나타남
 - 지역 문화행사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지역 홍보 관광수입 증대’가 42.2%로 가장 높음
 - 광주인근권의 ‘지역 특성 계승 발전’ 응답 비율이 2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8.0%p 이상 높음
 - ‘긍정적’ 비율은 남자가 74.8%, 여자가 75.7%로 비슷하게 나타남
 - 30대와 50대의 긍정적 견해 비율이 각각 81.2%, 80.0%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의 응답률은 6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이유로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비율은 62.3%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통 혼잡 등 질서문란’의 비율이 20.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서부권은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인 81.9%로 나타나며, 중부권은 ‘교통 혼잡 등 질서문란’ 응답률이 3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역 문화행사 개최(긍정적 이유) >>



<< 지역 문화행사 개최(부정적 이유) >>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긍정적

(단위 : %)

구 분	계	긍정적								부정적	잘 모르겠다
			소계	주민 화합 기여	지역 특성 계승 발전	지역 홍보 관광수입 증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기타			
2020년	100.0	75.2	100.0	30.3	20.6	42.2	6.9	0.0	8.6	16.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66.3	100.0	31.2	18.4	42.8	7.7	0.0	11.5	22.2	
광 주 인 근 권	100.0	95.2	100.0	29.3	27.5	35.4	7.8	0.0	3.2	1.6	
서 부 권	100.0	56.1	100.0	35.0	12.1	50.7	2.2	0.0	9.2	34.7	
북 부 권	100.0	76.3	100.0	27.2	15.1	50.0	7.7	0.0	12.4	11.3	
< 성 별 >											
남 자	100.0	74.8	100.0	31.2	20.6	40.8	7.4	0.0	10.4	14.8	
여 자	100.0	75.7	100.0	29.4	20.5	43.7	6.4	0.0	6.7	17.7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62.8	100.0	24.1	16.3	43.3	16.3	0.0	7.8	29.4	
30 ~ 39 세	100.0	81.2	100.0	24.3	11.9	48.8	15.1	0.0	8.1	10.7	
40 ~ 49 세	100.0	72.9	100.0	23.8	22.1	49.1	5.0	0.0	11.1	16.0	
50 ~ 59 세	100.0	80.0	100.0	30.3	22.3	39.1	8.3	0.0	9.8	10.1	
60 세 이상	100.0	76.0	100.0	35.2	22.0	40.3	2.5	0.0	7.5	16.6	
65 세 이상	100.0	75.1	100.0	37.9	20.6	39.6	2.0	0.0	5.9	19.0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부정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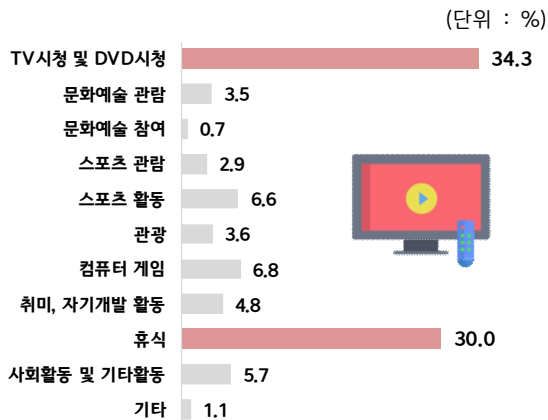
구 분	계	긍정적	부정적							잘 모르겠다
				소계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	바가지 요금 등 과소비 조장	교통 혼잡 등 질서문란	행사 프로그램 수준 저하	기타	
2020년	100.0	75.2	8.6	100.0	62.3	7.0	20.5	7.3	2.9	16.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66.3	11.5	100.0	54.9	3.5	30.2	7.0	4.4	22.2
광 주 인 근 권	100.0	95.2	3.2	100.0	66.4	0.0	0.0	33.6	0.0	1.6
서 부 권	100.0	56.1	9.2	100.0	81.9	0.0	14.6	1.7	1.7	34.7
북 부 권	100.0	76.3	12.4	100.0	56.5	22.5	18.3	0.0	2.7	11.3
< 성 별 >										
남 자	100.0	74.8	10.4	100.0	70.8	8.7	16.8	3.1	0.6	14.8
여 자	100.0	75.7	6.7	100.0	48.1	4.3	26.5	14.3	6.7	17.7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62.8	7.8	100.0	51.7	0.0	37.2	0.0	11.1	29.4
30 ~ 39 세	100.0	81.2	8.1	100.0	82.0	0.0	18.0	0.0	0.0	10.7
40 ~ 49 세	100.0	72.9	11.1	100.0	61.5	10.9	12.9	14.6	0.0	16.0
50 ~ 59 세	100.0	80.0	9.8	100.0	52.7	7.7	25.9	11.1	2.5	10.1
60 세 이상	100.0	76.0	7.5	100.0	68.9	8.6	15.0	5.1	2.4	16.6
65 세 이상	100.0	75.1	5.9	100.0	61.7	9.7	15.9	8.6	4.1	19.0

3-10.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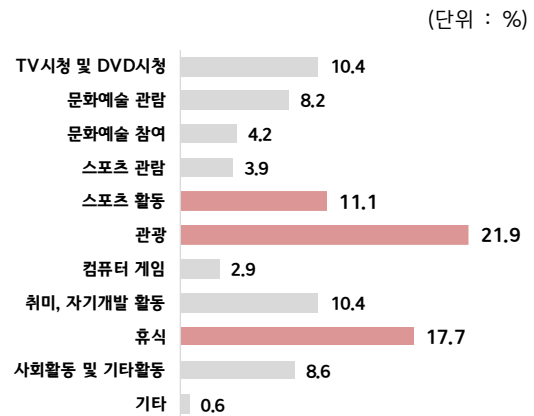
군민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과 휴식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 휴식
 -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이 34.3%로 가장 높고, 뒤이어 '휴식'이 30.0%로 높음
 - 남녀 모두 'TV 시청 및 DVD 시청'과 '휴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남자의 경우 '스포츠 활동'(8.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8.4%),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6.7%)이 높음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이 가장 높음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응답률은 골고루 나타났는데 '관광'의 비율이 21.9%로 가장 높았고, '휴식' 17.7%, '스포츠 활동' 11.1% 순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취미, 자기개발 활동'이 12.7%로 남자에 비해 4.4%p 높음

◀ 주로 하는 여가 활동 (다중응답) ▶



◀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다중응답) ▶



여가 활동 (다중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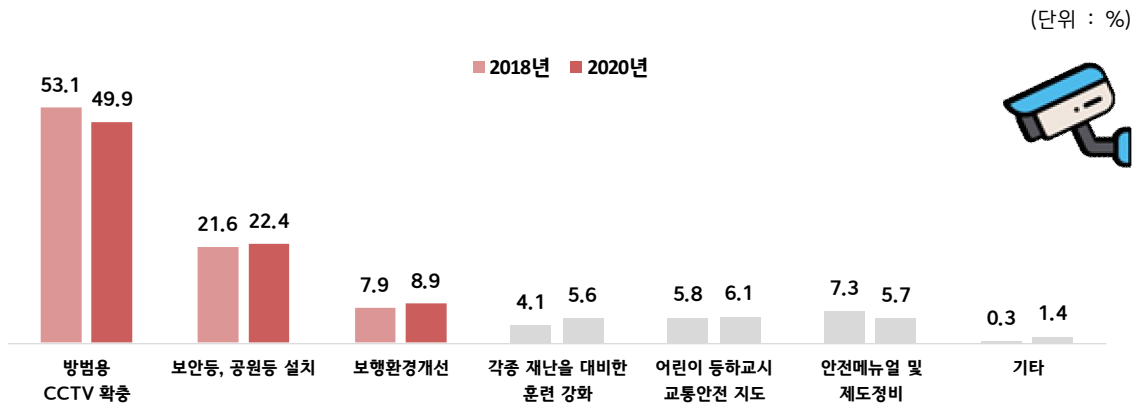
구분	계	TV 시청 및 DVD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													
2020년	100.0	34.3	3.5	0.7	2.9	6.6	3.6	6.8	4.8	30.0	5.7	1.1	
성별	남자	100.0	32.9	3.1	0.8	4.9	8.4	3.9	8.4	4.5	27.2	4.7	1.2
	여자	100.0	35.8	3.9	0.7	0.6	4.6	3.4	5.1	5.1	33.2	6.7	0.9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2020년	100.0	10.4	8.2	4.2	3.9	11.1	21.9	2.9	10.4	17.7	8.6	0.6	
성별	남자	100.0	9.3	7.2	3.4	6.4	15.2	20.3	4.8	8.3	17.4	7.1	0.6
	여자	100.0	11.6	9.3	5.2	1.2	6.6	23.7	0.9	12.7	18.0	10.3	0.5

3-11.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방법용 CCTV가 필요

- 안전한 지역 만들기 방안으로 방법용 CCTV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
 - ‘방법용 CCTV 확충’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가 2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2018년과 유사한 순서를 보임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은 2018년과 2020년 비율의 순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동일함
 - 가장 높은 비율인 ‘방법용 CCTV 확충’은 2018년(53.1%)보다 3.2%p 하락함
 -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는 2018년(21.6%)보다 0.8%p 증가함
 -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인 ‘보행환경개선’은 2018년(7.9%)에 비해 1.0%p 높은 8.9%임
 - 네 번째 비율은 2018년에 ‘안전메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이 7.3%인 반면, 2020년에는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주민자율 순찰 강화’가 6.1%로 나타남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2018년, 2020년)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

구분	계	방법용 CCTV 확충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	보행환경 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 강화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주민자율 순찰 강화	안전메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	기타
2020년	100.0	49.9	22.4	8.9	5.6	6.1	5.7	1.4
2018년	100.0	53.1	21.6	7.9	4.1	5.8	7.3	0.3
< 연령 별 >								
15 ~ 29 세	100.0	39.3	24.3	14.6	4.4	7.1	8.0	2.4
30 ~ 39 세	100.0	35.9	17.0	5.2	13.5	13.9	14.5	0.0
40 ~ 49 세	100.0	42.1	19.2	11.3	5.4	14.6	5.2	2.1
50 ~ 59 세	100.0	55.5	25.1	7.5	2.5	5.3	3.7	0.4
60 세 이상	100.0	55.5	22.5	7.9	6.1	2.0	4.4	1.6
65 세 이상	100.0	56.2	23.4	7.1	6.4	2.1	3.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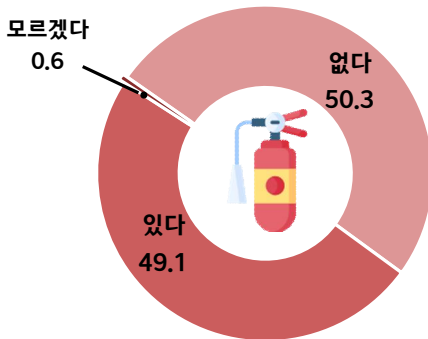
3-12. 주거 화재안전시설

군민 2명 중 1명은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10명 중 3명만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음

-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은 49.1%,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은 28.0%로 응답함
 -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군민은 49.1%, '없다'고 응답한 군민은 50.3%, '모르겠다'고 응답한 군민은 0.6%로 나타남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군민은 28.0%, '없다'고 응답한 군민은 71.2%, '모르겠다'고 응답한 군민은 0.8%로 나타남
- 북부권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유하는 비율이 낮음
 - 북부권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의 비율이 18.6%로 중부권(31.0%), 광주인근권(33.1%), 서부권(24.0%)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설치 의향이 없는 군민은 60.2%,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와 비용이 부담돼서
 - 광주인근권의 경우 '관심이 없어서'가 50.9%로 다른 지역의 비율보다 높음
 - 중부권의 경우 위의 이유 이외에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서'의 비율이 19.5%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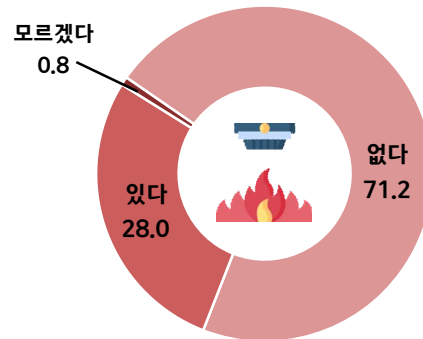
<< 주거 화재안전시설(소화기)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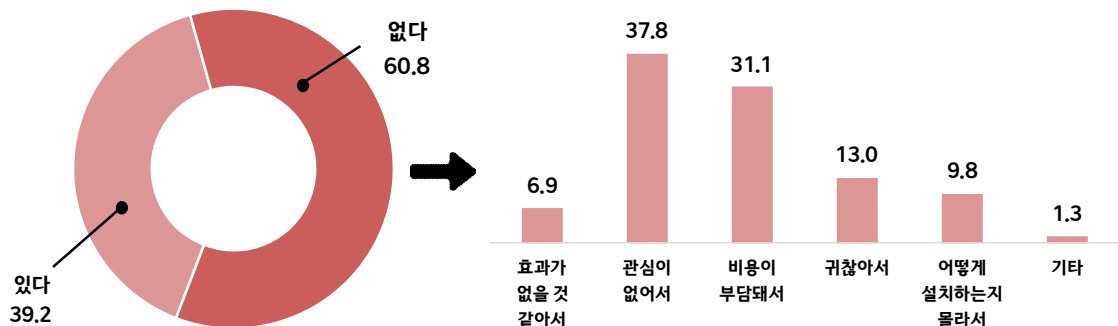
<< 주거 화재안전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

(단위 : %)



<< 주거 화재안전시설(설치의향) >>

(단위 : %)



주거 화재안전시설

(단위 : %)

구 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계	없다	있다	모르겠다	계	없다	있다	모르겠다
2 0 2 0 년	100.0	50.3	49.1	0.6	100.0	71.2	28.0	0.8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4.4	54.9	0.8	100.0	66.7	31.0	2.3
광주인근권	100.0	57.0	43.0	0.0	100.0	66.9	33.1	0.0
서 부 권	100.0	44.3	55.7	0.0	100.0	75.4	24.0	0.6
북 부 권	100.0	50.0	48.3	1.7	100.0	80.6	18.6	0.8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00.0	0.0	0.0	100.0	100.0	0.0	0.0
3 0 ~ 3 9 세	100.0	42.2	51.4	6.4	100.0	51.6	41.9	6.4
4 0 ~ 4 9 세	100.0	47.0	53.0	0.0	100.0	66.4	31.7	1.8
5 0 ~ 5 9 세	100.0	48.2	51.8	0.0	100.0	65.9	33.2	0.9
6 0 세 이상	100.0	52.4	47.0	0.6	100.0	75.7	24.0	0.3
6 5 세 이상	100.0	57.7	41.9	0.4	100.0	77.7	22.0	0.4

주거 화재안전시설 - 설치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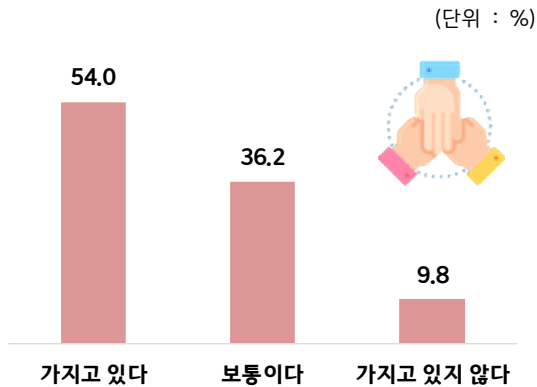
구 분	계	있다	없다	설치의향						
				소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귀찮아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서	기타
2 0 2 0 년	100.0	39.8	60.2	100.0	6.9	37.8	31.1	13.0	9.8	1.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8.4	61.6	100.0	9.3	20.7	32.8	13.9	19.5	3.7
광주인근권	100.0	31.8	68.2	100.0	4.3	50.9	31.2	11.8	1.9	0.0
서 부 권	100.0	35.2	64.8	100.0	0.9	33.7	26.8	23.5	15.0	0.0
북 부 권	100.0	56.2	43.8	100.0	16.0	35.1	33.1	3.5	9.7	2.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0.0	100.0	100.0	0.0	100.0	0.0	0.0	0.0	0.0
3 0 ~ 3 9 세	100.0	49.2	50.8	100.0	34.9	18.0	0.0	29.1	18.0	0.0
4 0 ~ 4 9 세	100.0	59.3	40.7	100.0	6.5	19.6	34.8	23.7	15.3	0.0
5 0 ~ 5 9 세	100.0	35.3	64.7	100.0	8.4	43.3	33.2	9.1	4.7	1.3
6 0 세 이상	100.0	38.2	61.8	100.0	5.5	37.4	30.8	13.2	11.5	1.5
6 5 세 이상	100.0	36.1	63.9	100.0	5.9	39.8	30.8	12.2	11.0	0.4

3-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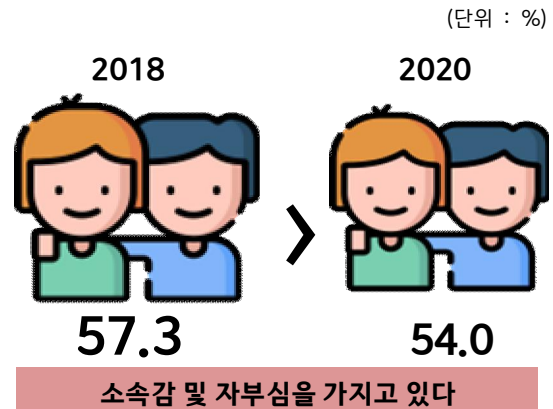
절반의 군민이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이 있는 군민은 54.0%임**
 -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은 54.0%, 가지고 있지 않는 비율은 9.8%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지고 있다'로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8년 대비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의 비율이 약간 감소**
 - '가지고 있다'의 비율은 2018년 대비 3.3%p 하락함
 - 2018년 대비 '많이 가지고 있다' 비율은 5.1%p 하락한 반면, '약간 가지고 있다' 비율은 1.8%p 상승함
 - 성별로는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57.5%로 여자보다 7.1%p 높게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 소속감 및 자부심이 있다(2018년, 2020년)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

구분	계	가지고 있다			보통이다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가지고 있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020년	100.0	54.0	15.7	38.3	36.2	9.8	7.4	2.3	
2018년	100.0	57.3	20.8	36.5	35.9	6.9	5.7	1.2	
< 성 별 >									
남자	100.0	57.5	17.7	39.8	35.1	7.4	4.9	2.5	
여자	100.0	50.4	13.6	36.8	37.4	12.2	10.1	2.1	
< 연 령 별 >									
15~29세	100.0	35.3	6.8	28.5	36.6	28.0	19.4	8.7	
30~39세	100.0	38.0	4.9	33.1	50.0	12.0	10.8	1.2	
40~49세	100.0	48.8	9.9	38.9	40.7	10.5	8.2	2.3	
50~59세	100.0	57.6	17.8	39.8	35.1	7.3	5.0	2.3	
60세 이상	100.0	62.9	21.4	41.5	32.5	4.6	4.0	0.6	
65세 이상	100.0	62.3	20.1	42.1	32.8	4.9	4.4	0.5	

